

콘크리트 강화용 섬유 'mercury®C'

Daiwabo사는 콘크리트의 균열을 감소시키는 콘크리트 강화용 섬유 'mercury®C'를 판매하고 있다.

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등의 시멘트계 재료는 오랜 시간 동안 날씨, 하중, 온도변화, 건조 등으로 인해 부피변화가 일어나며, 이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. 이러한 균열은 외관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, 누수, 내부 철근 부식에 의한 단면 감소,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. 기존의 섬유보강 시멘트복합형 재료는 콘크리트를 강화하는 기능은 있지만, 균열을 감소시키는 기능은 없다.

'mercury®C'는 당사의 이형단면(十형) 폴리프로필렌 섬유에 특수한 표면개질 기술을 적용해 탄산칼슘의 석출이 용이한 상태가 되도록 하여, 콘크리트의 균열을 감소시킬 수 있다. 따라서 'mercury®C'를 사용할 경우, 균열로 인한 보수작업을 줄일 수 있으며, 화재시 발생하는 수증기 폭발 방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.

